

광주·전남 대표 소주에 '오월의 기억' 담아



영화 이미지가 담긴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보해양조 제공

보해, 영화 택시운전사 특별판 선배 '앞새주' 라벨에 영화 이미지 반영 4~5월 판매... 광주FC 등 이벤트도 "평범한 시민의 비범한 용기" 기억

"광주·전남 대표 소주에 '오월의 기억'을 담았다."

주류전문기업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소주 브랜드 '앞새주'와 12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만난 특별판을 선보인다.

1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번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제품 라벨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취재한 독일기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해양조는 영화를 오월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라벨 하단에 '앞새주의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오월을 기억하고 그의 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했다.

보해양조는 오는 4~5월 중 지역 내 대표 스포츠 구단인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에서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 관련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은 4~5월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앞새주는 36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16.5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앞새주는 언제나 광주·

전남 지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소주다"며 "이번 '택시운전사X앞새주' 특별판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향토기업인 보해양조는 1950년 창업자고 임광행 회장이 설립한 74년 전통의 주류전문회사로, 국내 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세계 3대 소금을 넣어 쓴맛을 잡고 풍미를 더한 '보해소주', 최상급 복분자만을 사용하여 맛이 깊고 진한 '보해복분자주',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직접 생산한 청매실로 빛이 맛이 순하고 깨끗한 '매취순', 저온살균 공법으로 신선한 맛을 오랫동안 균일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순희 막걸리', 소다맛에 탄산을 더해 청량감과 달콤함이 특징인 '부라더 소다' 등이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디자인진흥원·국민대학교 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디자인산업 인재 양성 등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국민대학교는 최근 디자인산업 발전 및 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을 비롯해 윤보연 디자인비엔날레 사무국장, 문지수 책임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대학교에서는 정승렬 총장, 이인형 산학협력담당장, 최경관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장, 장중식 조형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자인산

업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디자인산업 발전 및 국제교류를 위한 다양한 공유 및 협업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기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 기관은 오는 2025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전시회를 선보이고 이를 통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송진희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이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을 넘어서 국제적 다양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KJ카드, 인기 스포츠 입장권 할인 이벤트

광주FC 홈경기 최대 7200원 할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2500원 할인

광주은행은 최근 K리그에 이어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 등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온 가운데, 인기 스포츠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FC 홈경기 입장권 할인 지난 3월 광주FC와 제휴를 통해 출시된 광주FC체

크카드로 입장권 매표(온라인 예매 포함)시 경기당 1회 본인에 한해 홈경기 입장권 40% 특별 할인을 제공하며, 성인 기준 일반석(W석) 결제 시 최대 7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서 광주은행 KJ카드로 입장권 매표(온라인 예매 포함)시 경기당 1회 본인에 한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홈경기 입장권 2500원 특별 할인(특별석 제외)을 제공한다.

두 이벤트 모두 전월 이용실적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광주은행 앱(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유통구 카드사업부장은 "야외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온 가운데, 광주카드 이용 고객들이 할인 혜택과 함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

5월 7~31일 진행

현대차는 봄철을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5월 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통학차량으로 운영 중인 스타리아와 스타렉스, 중·대형상용버스(카운티·유니버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대차는 무상점검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해주는

'차량 진단 점검' △와이퍼·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보충 서비스' △실내 항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15일부터 22일까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https://www.hyundai.com)에 있는 안내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 선착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80-600-6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후원

금호타이어가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을 공식 후원한다.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현대성우솔라이트고장환 레이싱 담당 이사 및 이재우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싱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싱로 아이오닉 5 N eN1 컵카로 레이싱이 진행된다. '아이오닉 5 N eN1 컵카'는 최고 출력 478kW(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팀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성우그룹 소속 모터스포츠 팀이다. 지주사인 현대성우홀딩스와 더불어 알로이휠 및 주물 제품 제조사인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인 현대성우솔라이트, 물류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인 현대성우신소재가 현대성우그룹 내 속해 있다.

올해 창단 27주년을 맞이한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명실 공히 국내 최정상 모터스포츠팀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2019년 블랑팡 지티 월드 챌린지 아시아 드라이버 종합 우승, TCR 아시아 팀 종합 2위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위

상을 높인 바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TCR 이탈리아에 아시아팀 최초로 폴 시즌 출전하여 톱10에 진입하는 등 모터스포츠 본고장 유럽 진출 원년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2024시즌 동안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 레이싱카와 드라이버 슈트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적용한다. 또한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에 금호타이어 레이싱 타이어를 공급하며 국내 최초 EV 레이싱인 eN1 클래스에서 최상위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할 계획이다.

윤장혁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국내 최고의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과 후원 계약을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신뢰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국내외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노동 칼럼

A씨는 제조업 공장에서 20년 1월에 입사하여 24년 3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다.

최근 퇴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우리 센터로 연락을 주었다.

우선 A씨가 일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해보면, 20년에는 매월 하루씩 총 11일, 21년 1월에 15일, 22년 1월에 15일, 23년 1월에 16일, 24년 1월에 16일이 발생했다.

그 중 20년과 21년에는 각각 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22년과 23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사용했다. 24년의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16일의 연차가 모두 남아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되고, 임금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A씨는 20년에 매월 발생한 연

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의 휴가는 21년 1월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21년 1월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2년 1월에 수당으로 전환된다.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16일의 휴가는 퇴사일(24년 4월)에 수당으로 전환될 것이다.

A씨는 이 곳에서 일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 퇴사할 때 한꺼번에 정산을 하고 싶다고

이연주
공인노무사

했다. 하지만 A씨는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서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21년 1월에 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졌고, 22년 1월과 24년 4월에 전환된 수당만 청구할 수 있

는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1월에 전환된 5일 어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퇴사로 발생한 15일 어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4년 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A씨는 재직하면서 미사용수당을 시기에 맞추어 제대로 정산받았어야 했다면서 아쉬워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뻐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라.

1588-6546